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희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빙하조선2

정명섭 장편소설

주제어: 역사, 판타지, 모험, 재난, 기후변화

다산
책방

• 책 소개

십 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꾼 정명섭 작가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빙하 조선』의 두 번째 이야기가 출간됐다. 한여름에 쏟아지기 시작한 눈보라가 조선 전역을 얼려버린 뒤 국가의 질서와 법도가 붕괴하고 개개인의 인간성까지 무너진 전편의 풍경을 이어받아, 얼어붙은 조선의 심장을 한층 더 깊고 냉혹하게 파고든다. 빙하 조선 속 유일하게 온기를 간직한 ‘온혈’이라는 삶의 터전으로 세계관을 넓히고, 바람을 이용해 하늘을 날 수 있는 조선 최초의 글라이더로 기록된 ‘비차’를 탄 주인공 화길의 스펙터클한 모험은 전편과의 독립적인 서사로서 역사를 상상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재미를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 학습 목표

1. 인물의 대화나 소재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2. 소설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나 감정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3.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학습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읽기 활동	얼어붙은 세상에서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3. (창의적 읽기) 시대적 배경 학습하기
2		온혈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비판적 읽기) 인물의 행동 비판하기 3.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 작품 내용 추론하기
3		침입자들 1. (추론적 읽기) 복선을 통해 이어지는 내용 추론하기 2. (창의적 읽기) 배경지식 확장하기 3. (비판적 읽기 + 창의적 읽기) 인물의 행동 비판하기 + 리더십에 관해 학습하기
4		하늘을 날다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대화의 의미 추론하기 3. (추론적 읽기) 작품 속 인물의 정체 추론하기
5		아버지 1. (사실적 읽기) 작품 속 인물 및 소재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 추론적 읽기) 작품을 읽으면서 든 감정 나누기 + 작품 내용을 토대로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3. (감상적 읽기 + 사실적 읽기) 작품을 읽으면서 든 감정 나누기 + 복선 훑어보기
6		읽은 후 활동 1. (감상적 읽기)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2. (추론적 읽기)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3. (창의적 읽기) 기후 위기를 다룬 콘텐츠 소개하기

1. (사실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 (1) 따뜻한 땅이 있는 폭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2) 화길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 (3) 월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2. (사실적 읽기) 본문 22쪽을 참고하여 기와집 안에서 저항 중이던 조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리해 봅시다.

먼저 뛰어가는 월화의 뒤를 화길이가 따랐다. 마을 가운데에는 다 쓰러져 가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주변에 털가죽을 뒤집어쓴 여진족들이 보였다. 다른 집과는 달리 흙과 돌로 만든 담장에 둘러싸인 기와집 안에서 조선 사람들이 기왓장을 던지며 저항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여진족들은 이리 저리 움직이면서 틈을 노렸다. 화길이가 월화에게 속삭였다.

3.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여진족에 관해 알아봅시다.

- ▶ 참고 영상 1: 역사저널 그날 - 거란족과 여진족, 어떻게 다른가?
https://www.youtube.com/watch?v=xSNVe5hizal&list=PLj8fL2Alo-bF-D95uJ_DM6LkTILBjb_&index=2
- ▶ 참고 영상 2: [#벌거벗은세계사] 동아시아에서 전투력이 TOP이었던 여진족
<https://www.youtube.com/watch?v=vuS0uPeIShI&t=269s>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다음은 본문의 내용을 RPG 게임의 퀘스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봅시다.



한공청

내 이름은 한공청이란다. 온성 관아에서 호방으로 일했었지. 지금 하늘을 나는 비차라는 것을 만들고 있단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 ▶ 말해주세요.
- ▶ 지금은 바빠서…….



한공청

고맙구나. 비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레를 만들 때 쓸 (㉠)와/과 날개에 쓸 (㉡)(이)나 (㉢)이/가 필요하단다. 구해줄 수 있겠니?

- ▶ 문제없어요!
- ▶ 지금은 너무 추워요.



㉠	
㉡	
㉢	
㉣	
㉤	

2. (비판적 읽기) 화길의 태도에 대한 아래의 입장 중 하나를 골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월화가 화길에게 낮게 투덜거렸다.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외면할 수는 없잖아.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굶어 죽거나 여진족들에게 당할 게 뻔한데 말이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려줄 수는 없어.”
 “그렇긴 해도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죽었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월화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요즘 피난민들이 늘어나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 한숨 돌릴 만하니까 양반이네 관리

이네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고.”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잘 얘기하면 될 거야.”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사대부라고 큰소리치는 건지, 쫓쫓.”

“다들 어울려서 지내야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오빠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방금 내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월화 언니도 없었으면 오늘 송장 치웠어, 진짜.”

“고마워.”

“정말 너무 착해.”

화길이는 입을 삐죽 내밀고 투덜거리는 경혜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더 이상 희생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입장1] 화길의 태도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

[입장2] 화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

3.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3-1. (사실적 읽기)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어 경혜 할머니의 예언을 정리해봅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일 귀인을 만나 함께 ()을/를 찾아갈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귀인을 쫓아내려는 자는 모두 () 하셨어요.”

3-2. (추론적 읽기) 밑줄 친 ‘귀인’이 누구인지 추측해봅시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추론적 읽기) 밑줄 친 ‘얼어 죽은 양반’이 움직인 것처럼 보인 현상이 서사 진행에 미칠 영양에 관해 추측해 봅시다.

“어? 고개가.”

정자관을 쓴 채 앉아서 얼어 죽은 양반의 고개가 아까보다 더 들려 있었다. 화길이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양반의 얼굴을 바라봤다. 뽕뽕 얼어붙은 얼굴에는 핏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왜 들려진 거지?”

얼어 죽은 시신들은 나무토막이나 얼음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고개가 들린 상태였다. 이미 죽은 시신이라 스스로 움직였을 리도 없었다.

“대체…….”

말을 잊지 못한 채 지켜보던 화길이는 저도 모르게 오소소 돋는 소름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략> “안에 뭐가 있어?”

“아, 아니야, 아무것도. 어서 가자.”

지계를 멘 화길이는 서둘러 움직였다. 죽음에서 돌아온 존재가 자신들을 공격할 것만 같은 끔찍한 상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불길하고 이상한 장소를 뜨는 수밖에 없었다. 화길이는 뒤따라 나오는 월화와 경혜를 부축하면서 사랑채 쪽을 힐끔 바라봤다. 당장이라도 정자관을 쓴 양반이 자신의 안식을 방해한 세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만 같았다. 다행히 모두가 담장을 넘어갈 때까지 사랑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등 뒤에서 싸늘하고 서늘한 바람이 마치 화길리와 일행을 쫓아내듯 불어왔다.

2. (창의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2-1.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담은 한자 성어를 찾아 써봅시다.

“소식은 건너 들었습니다. 동래로 유배되셨는지요?”

주량지의 물음에 성창 대군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솔으로 들어가야 할 운명이니까요.”

“그 운명이 날씨 때문에 바뀌었군요.”

“그런 셈이오. 명나라도 상황이 비슷합니까?”

兔			
토끼 토			

2-2. 위의 한자성어에 해당하는 상황을 상상해 친구에게 이야기해봅시다.

3.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3-1. (비판적 읽기) 리더십에 대한 성장대군의 생각과 주량지의 행동을 비판해봅시다.

아랫것들을 다스리고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면 온정보다는 가혹함이 더 필요하다고 믿었다. 잘해 줬 봐자 결국은 기어오르고 배신할 것이라는 게 오랜 믿음이자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량지의 잔혹함은 상상 이상이였다. 자신도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혹독하게 처벌한 적이 있었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베라는 명령은 내린 적이 없었다.

〈중략〉

오냐, 하고 짧게 대답한 성장 대군은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수레가 이끄는 대열 옆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한 명은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남태유가 뒤에서 그의 목을 칼로 내리쳤다.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가 눈 위로 힘없이 굴러갔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명나라 출신의 병사는 차디찬 이국 땅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목이 베어진 시신을 잠시 바라보던 남태유는 말을 타고 대열에 합류했고, 주변이 있던 병사들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무심하게 움직이는 발길이 죽은 시신 곁을 말없이 지나쳐 갔다.

3-2.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우고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 평범해 보여도,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되는 사람의 2가지 특징
<https://www.youtube.com/watch?v=7CC4-o2f9tc>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다음은 학생이 이번 챕터를 간추려 발표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고 학생의 발언 속에 드러난 오류를 수정해 봅시다. (오류는 총 3개입니다.)

보름달이 깃든 밤, 온혈의 사대부들이 모였어. 분조를 세우자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지. 이응도는 임중세에게 세자를 모셔오라고 명했고, 심계진은 자신의 아들 심용규가 훈련시키고 있는 경비대를 동원해 온혈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어.

한편 비차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던 화길에게 부광이 찾아와 성장대군의 속셈을 말해줬어. 화길이 이 사실을 사대부들에게 알리자 이응도는 부광을 성장대군을 보내 온혈에 들일 계략을 세웠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화길은 경비대를 직접 지휘하며 온혈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했어.



오류 1	
오류 2	
오류 3	

2.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2-1. 심계진이 아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달빛 아래 서서 저와 얘기를 나눌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달빛이 만들어낸 자신의 그림자를 힐끔 쳐다본 심계진이 다시 물었다.

“나를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예언했겠구나.”

“물론이죠. 어르신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아들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2-2. 심계진에게 전한 경혜의 ‘말’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해 봅시다.

한편, 움막 밖에서 한공청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경혜는 옆에 서 있던 심계진을 올려다봤다.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심계진은 화길이가 누워 있는 움막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믿다마다.”

한숨을 푹 쉰 심계진이 덧붙였다.

“믿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말이야.”

지도 TIP

현재까지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난 후 다시 돌아와서 정답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3.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3-1. 여러분은 퀴즈쇼의 참여자로 참여했습니다. 사회자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래, 물속에 빠진 게 기억나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온 거야? 누가 날 꺼내준 거야?”

“우리도 몰라. 비차가 떨어지는 걸 보고 달려가긴 했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 갔더니 얼음이 깨져 있고, 그 옆에 오빠가 쓰러져 있었어. 부서진 비차 조각이랑 같이 말이야.”

“내가 스스로 물 밖에 나온 기억은 없는데.”

“누가 꺼내준 거 같아. 근처에서 고로쇠 썰매 자국을 발견했거든.”

3.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3-1. 여러분은 퀴즈쇼의 참여자로 참여했습니다. 사회자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래, 물속에 빠진 게 기억나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온 거야? 누가 날 꺼내준 거야?”

“우리도 몰라. 비차가 떨어지는 걸 보고 달려가긴 했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 갔더니 얼음이 깨져 있고, 그 옆에 오빠가 쓰러져 있었어. 부서진 비차 조각이랑 같이 말이야.”

“내가 스스로 물 밖에 나온 기억은 없는데.”

“누가 꺼내준 거 같아. 근처에서 고로쇠 썰매 자국을 발견했거든.”



3-2. 다음 사회자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조심스레 움막 입구를 살핀 한공청이 손에 쥐고 있던 가죽끈을 보여줬다.

“부서진 비차를 수리하다가 확인한 거야.”

한공청이 손에 쥐고 있던 가죽끈의 절반이 매끈하게 잘려 있었다.

화길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건?”

“칼로 가죽끈의 절반을 끊어냈어. 비차가 떴을 때 가죽끈을 당기다가 끊어지도록 만든 거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화길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한공청이 말했다.

“비차에 접근한 사람들은 꽤 많아. 경비대원들도 그렇고, 온성 부사 심계진이나 그 아들 심용규 모두.”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모르지. 확실한 건 네가 하늘을 날았다가 영원히 내려오지 않기를 바란 거 같아. 거의 이뤄졌었지만 말이야.”



3-3. 다음 사회자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심란해진 화길이의 눈에 하얀 설원을 가로질러 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부광이가 말한 요동 군왕의 부대인가 싶어 비차를 낮춰 살펴보기로 했다.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제대로 걷지 못했다. 무엇보다 옷이 너무 얇았다. 두툼한 털가죽이나, 그게 없으면 아무 천 쪼가리라도 뒤집어써서 추위를 막기라도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지도 TIP

현재까지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지만, 책을 다 읽고 나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난 후 다시 돌아와서 정답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화길이가 아버지를 찾아 도착한 곳의 이름은?	
화길과 아버지를 포박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화길이가 왕족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은?	
성창대군의 목을 자른 사람의 이름은?	

2.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짜늘하게 대답한 남태유는 언월도를 휘둘렀다. 짜늘한 허공을 가르며 언월도가 성창 대군의 손가락을 잘랐다. 눈 위로 우두둑 떨어지는 손가락들을 보면서 성창 대군이 나머지 말을 내뱉었다.

“저기에 있어!”

하지만 남태유는 다시 한번 언월도를 휘둘러 성창 대군의 목을 뺐다. 툭 잘린 목은 뿔어져 나오는 피와 함께 허공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져 눈발 위를 굴러갔다. 남태유는 언월도를 바닥에 내리쳐 피를 털어내고서 수레를 향해 돌아섰다.

2-1. (감상적 읽기) 이 장면에서 제시된 성창대군의 죽음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2. (추론적 읽기) 앞부분에서 화길이가 목격한 한 무리의 사람들과 성창대군의 죽음을 연결지어 이어질 이야기를 추론해 봅시다.

심란해진 화길이의 눈에 하얀 설원을 가로질러 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부광이가 말한 요동 군왕의 부대인가 싶어 비차를 낮춰 살펴보기로 했다.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제대로 걷지 못했다. 무엇보다 옷이 너무 얇았다. 두툼한 털가죽이나, 그게 없으면 아무 천 조각이라도 뒤집어써서 추위를 막기라도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3.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담담하게 대답한 아버지는 심계진을 올려다봤다. 사대부 중 한 사람이 심계진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이제 저놈까지 잡았으니 몽땅 목을 베어서 화근을 없애시지요.”

“맞아. 화근을 없애야지.”

짧게 대꾸한 심계진이 묶여 있는 화길에게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허리에 찬 장도를 뽑았다. 최후를 예감한 화길이가 마른침을 삼키는데 심계진이 아들을 불렀다.

“용규야!”

“예, 아버지!”

심계진이 손가락을 들어 한곳에 서 있는 사대부들을 가리켰다.

“나라의 역적인 저들을 몽땅 포박하라.”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3-1. (감상적 읽기) 이 장면에서 제시된 심계진의 행동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3-2. (사실적 읽기) 작품의 앞부분을 다시 읽고 심계진이 화길의 편을 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을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1. (감상적 읽기) 다음 각각의 장면에서 보인 화길의 행동에 집중하여, 만약 저 상황 속에서 화길이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장면 1〉

“지금은 비록 무기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잘 가르치면 좋은 병사들이 될 거야. 어찌다 보니 훈련과 지휘를 맡고 있지만 욕심을 낼 생각은 전혀 없어. 부상이 나가지면 나와 함께 경비대를 이끌자.”

예상 밖의 제안이라 월화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화길이는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두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월화가 화길에게 물었다.

“왜 거절했어?”

“아직 스무 살도 안 된 내가 무슨 군대를 지휘해.”

“못할 건 뭐가 있는데? 네가 아니었으면 여길 노리는 여진족이나 성창 대군을 어떻게 물리쳤겠어?”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네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죽지 않으려면 남을 죽일 각오를 해야만 해. 오늘 구해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옷가지를 빼앗겨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

〈장면 2〉

“왜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려고 애쓰는 거야?”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돌아오라고 했어.”

“세상이 추워지면서 가장 먼저 없어진 게 뭘지 알아?”

주먹밥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녹이던 월화의 물음에 화길이가 고개를 들었다.

“뭘데?”

“가족이랑 약속이야. 날이 추워지니까 살기 위해서 자식의 옷을 빼앗고, 부모의 음식을 빼돌리고, 먹을 걸 찾아오겠다고 떠나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알지, 아주 잘.”

“온혈로 들어온 양반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해졌어. 자기들끼리 뭉쳐 다니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잖아.”

“양반들이잖아.”

“그건 나라님이 있고, 나라가 멸절할 때나 가능한 얘기지.

그리고 온혈에는 양반들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 자칫하다가는 우리끼리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월화의 말에 화길이가 고개를 저었다.

“한쪽이 참으면 돼. 그리고 밖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온혈에서 또 싸우겠어?”

“넌 사람을 정말 모르는구나.”

다소 가시 돋친 월화의 대꾸에 화길이는 힘주어 대답했다.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된통 크게 당하고 말 거야.”

〈장면 3〉

“지난번에 비차의 가족 끈이 끊어진 적이 있었잖아.”

“네.”

“아무래도 저놈의 소행인 거 같아.”

한공청이 가리킨 곳에는 장준원이 서 있었다.

“저 사람이요?”

“그래, 그 후에도 계속 비차 근처를 얼쩡거리서 신경 쓰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몰래 접근하려다가 들켰어. 손에는 작은 칼을 들고서 말이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한숨을 푹 내쉬 한공청이 속삭이듯 덧붙였다.

“알다시피 장준원이 경비대원이잖아. 경비대장 심용규는 심계진의 아들이고 말이야. 그냥 저놈이 혼자서 멋대로 저지른 짓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심용규는 우리 일을 잘 도와주었잖습니까.”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들켰을 때 발뺌하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겠어?”

한공청의 말에 화길이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확실하지 않은 추측으로 추궁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자네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아니면 착한 척을 하려고 애쓰거나.”

2. (추론적 읽기) 작가의 말을 참고하여 화길이가 취한 행동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파악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인간은 인간답게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재합니다. 『빙하 조선』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문학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빙하 조선』을 읽는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극한상황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도 TIP

경해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은 극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화길에게 비인간적인 선택을 유도하지만, 화길은 늘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점을 지적하여 화길의 선택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창의적 읽기) 기후 위기를 다룬 영화, 드라마, 책 등의 콘텐츠 중 한 가지를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 모든 삽입 그림은 AI(제미나이) 활용 이미지입니다.